‘성범죄 불안’ 경찰 못믿어 주민들이 나섰다

광산구 수완지구 성폭행 사건 주민대책회의
경찰불러 수사상황 묻고 지역별 예방책 마련
남구에선 등하굣길 동행 도우미제 운영키로

“도대체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나서 대책회의까지 열겠습니까?”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에 이어 광주 여고생 성폭행 사건 등 아동과 학생 등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불안한’ 주민들이 마침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지역 주민들이 경찰 실무자를 불러내 수사 진척 정도를 캐묻고 학생들의 등하굣길에도 동행하는 등 스스로 안전대책을 세우고 나선 것이다.

치안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으나 검문검색 재실시, 방범비상령 발표 등으로 요약되는 경찰의 관련 대책은 여전히 ‘책상머리’에서 나오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광주시민센터 광산지부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북카페 ‘숨’에서 수완지구 성폭행사건 주민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경찰, 관련 단체 담당자, 주민 등 20여 명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 단위별 예방 방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경찰에 대한 성토도 그치지 않았다.

한윤희(38·광산구 운남동)씨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자유롭게 다닐 권리가 있는 여성으로서 지금의 상황은 서글프기 까지 한다”며 “경찰이 하지못한다면 우리들이라도 나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등 범죄는 빈발하고 있으나 치안시스템은 예방보다는 ‘발생 후 검거’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대표 등은 향후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동네 순찰 등을 실시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여성단체 회원과 주민 등이 10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북카페에서 수완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와 함께 광주시 남구는 최근 잇따른 성폭력 사고에 따라 초등학생, 여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하굣길 동행 도우미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성범죄에 노출돼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와 여성단체회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역 여성단체협의회와 학생사랑협의회, 자율방범대까지 동원돼 등하굣길과 야간에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게 된다. 남구는 이외에도 아파트 공원과 주택 밀집지역 등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900% 살인이자

불법 대부업자 52명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채무자를 협박해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 52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등록·이자제한위반 등 불법대부업 32명, 불법채권추심 20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최고 900%에 이르는 고리를 뜯어내는 등 대부분 서민들을 상대로 살인적인 이자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 서부경찰에 붙잡힌 유모(40)씨는 학원강사 A(여·45)씨에게 9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80만원을 공제했으며, 이후 10일 단위로 180만원의 이자를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대부회사에서 소액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1년 동안 이자를 변제했다. 특히 대부업자 유씨는 “남편에게 알리겠다” 등의 문자로 A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또 대부업자 박모(37)씨는 지난해 2월 20년 지기 친구인 B(37)씨에게 선이자 450만원을 제외한 8550만원을 빌려주고, 매달 1700만원(연 237%)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B씨도 결국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대출회사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나원참 〈8645〉 김종두

성매매 안마시술소 업주 구속

여수경찰은 10일 불법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업주 박모(여·38)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종업원 2명과 건물주 양모(6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7월부터 여수시 학동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해 1차례에 17만원을 받아 그 가운데 절반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모두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여고생 성폭행 수사 답보

광주시 광산구 여고생 납치·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를 우범자군과 대조했으나 이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수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산경찰은 10일 성폭행 피해자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광산구 내 성폭력 우범자 120여명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관계자는 “용의자의 옷차림이나 지리를 잘 아는 점 등으로 볼 때 인근 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사 대상을 관내 성폭력 우범자와 일반 우범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CCTV 영상을 분석해 키 175㎝에 검정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를 착용한 20대 남성의 용의자를 공개수배 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고물 수집하러 갔다 … 70대 할머니 성추행

광주동부경찰은 10일 집에 홀로 있는 70대 할머니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물 수집상 한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김모(여·76)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김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술을 마신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 들렀다가 김씨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도심 ‘총기난사’ 소동

5·18 영화 ‘26년’ 촬영 현장서 공포탄 쏴

주민들 깜짝놀라 신고

광주에서 갑작스런 ‘총기 난사 소동’으로 경찰이 긴장했지만 영화 촬영으로 인한 소음에 따른 해프닝으로 끝났다.

1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동구 일대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수 차례 접수됐다.

이 같은 신고로 관할 지구대와, 동 주민센터에도 폭주하는 등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면서 경찰도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0시30분 사이 동구 일대에서는 총을 난사하는 소리가 5~10분 간격으로 3~4차례 울렸다.

그러나 문제의 총기 난사 소리는 광주시 동구 동명동 옛 과학관 앞에서 진행된 영화 ‘26년’의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화가 강풀의 원작을 바탕으로 5·18 광주 민중항쟁을 다룬 영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배우들이 공포탄을 발사하면서 소음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격전이 있는 영화 촬영 소식이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못하면서 빚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목포 50대 주부 15일째 연락 두절

경찰, 공개 수사 나서

목포에서 50대 주부가 15일째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다. 10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새벽 1시께 목포시 상동 모 치킨집에서 지인 3명과 술을 마신 뒤 헤어진 이영미(여·52)씨가 실종됐다.

동거남 김모(49)씨는 경찰에서 “술집에서 두 번 전화를 걸어 데리러 올 것을 요구했으나 다음날 일찍 일을 나가야 돼 가지 못했다”면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안 돼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이씨가 술집에서 나와 두 차례 택시를 탄 사실과 이날 새벽 5시께 무안군 일로읍에서 누군가와 통화한 것을 휴대폰 기지국을 통해 확인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광주 양동시장에 방화 추정 불

화재에 취약한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10시5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내 상가 앞 인도에 진열된 물품 2곳에 불이 붙은 것을 상인 오모(52)씨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이날 불은 소방서 추산 3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119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경찰은 상가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토대로 30대 초반 남성을 추적 중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축구공 덕분에 건진 목숨

쌍나팔

○…서울 한강대교에서 투신한 60대가 인근에서 운동하던 한 시민의 ‘축구공 구조’ 덕분에 구사일생.

○…10일 경찰과 소방서 등에 따르면 김모(65)씨가 지난 9일 오전 8시 15분께 서울 한강대교에서 자살하기 위해 강물로 투신했지만, 이를 발견한 한 시민이 119에 신고한 뒤 축구공을 안고 강물에 뛰어들었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이 시민은 공을 자신의 배 위에 얹어놓고 김씨를 안은 채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텼으며, 출동한 경찰은 “자칫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짧은 순간에 기지를 발휘했다”고 안도. /연합뉴스